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 Strauss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조 하 나

R. Strauss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관한 연구

박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조 하 나

인 준 서

조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는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200여곡이 되는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의 가곡은 후기 낭만주의의 예술가곡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을 잘 보여주며 서정적인 선율, 반응계적 화성, 화려한 색채의 반주부 등 전체적으로 풍부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인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은 시인 펠릭스 단(Felix Dahn, 1834~1912)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작품으로 슈트라우스의 초기 가곡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Kornblumen(수레국화), Mohnblumen(양귀비), Epheu(담쟁이덩쿨), Wasserrose(수련) 총 4곡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네 가지 꽃의 사실적인 모습과 꽃을 의인화 시킨 소녀의 모습을 멜로디, 불협화음, 동명이음을 이용한 전조, 시의 운율에 따른 박자변화, 급격한 음의 도약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 반주, 화성, 선율의 분석을 통하여 『Mädchenblumen (소녀의 꽃)』 Op.22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와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사용된 표현기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2
1. Richard Strauss의 생애 및 가곡 특징.....	2
(1) Richard Strauss의 생애.....	2
(2) Richard Strauss의 가곡 특징.....	6
2. 연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연구.....	8
(1) 작품개요.....	8
(2) 제 1곡 Kornblumen(수레국화).....	10
① 가사 해석.....	10
② 악곡 분석.....	11
(3) 제 2곡 Mohnblumen(양귀비).....	19
① 가사 해석.....	19
② 악곡 분석.....	20
(4) 제 3곡 Epheu(담쟁이덩굴).....	29
① 가사 해석.....	29
② 악곡 분석.....	30
(5) 제 4곡 Wasserrose(수련).....	40
① 가사 해석.....	40
② 악곡 분석.....	42
III. 결론.....	56

참고 문헌

ABSTRACT

악보 목차

<악보 1>	제 1곡 마디	1-4.....	12
<악보 2>	제 1곡 마디	5-10.....	14
<악보 3>	제 1곡 마디	10-15.....	15
<악보 4>	제 1곡 마디	16-19.....	16
<악보 5>	제 1곡 마디	19-27.....	18
<악보 6>	제 2곡 마디	1-3.....	21
<악보 7>	제 2곡 마디	4-12.....	23
<악보 8>	제 2곡 마디	13-22.....	25
<악보 9>	제 2곡 마디	19-20.....	26
<악보 10>	제 2곡 마디	22-26.....	27
<악보 11>	제 2곡 마디	27-32.....	28
<악보 12>	제 3곡 마디	1-4.....	31
<악보 13>	제 3곡 마디	5-9.....	32
<악보 14>	제 3곡 마디	10-16.....	33
<악보 15>	제 3곡 마디	16-22.....	35
<악보 16>	제 3곡 마디	23-30.....	37
<악보 17>	제 3곡 마디	31-41.....	39
<악보 18>	제 4곡 마디	1-6.....	44
<악보 19>	제 4곡 마디	7-23.....	46
<악보 20>	제 4곡 마디	24-37.....	48
<악보 21>	제 4곡 마디	38-49.....	50
<악보 22>	제 4곡 마디	49-54.....	52
<악보 23-1>	제 4곡 마디	57-65.....	54
<악보 23-2>	제 4곡 마디	57-65.....	55

표 목차

<표 1> 제 1곡 구조.....	11
<표 2> 제 2곡 구조.....	20
<표 3> 제 3곡 구조.....	30
<표 4> 제 4곡 구조.....	42

I. 서론

후기낭만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트라우스는 교향곡 오페라뿐만 아니라 200여곡이 되는 가곡을 작곡했고 예술가곡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가곡은 유연한 선율, 반음계 화성, 잦은 전조, 화려한 색채의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풍부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슈트라우스의 연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은 그의 작품들 중 20대 전반에 작곡된 초기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은 자연적인 소재인 꽃을 사용해 소녀의 모습에 비유한 작품으로 Kornblumen(수레국화), Mohnblumen(양귀비), Epheu(담쟁이덩굴), Wasserrose(수련) 모두 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사 리싸이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 이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꽃을 의인화 해 소녀에 비유했다는 것이 특이했고, 꽃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 연주하고 싶어서 분석을 통해 곡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자 이 작품을 논문의 주제로 정하였다.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슈트라우스의 생애와 그의 가곡특징을 알아보고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의 작품은 간단한 표를 이용해 각 곡의 형식구조를 파악하고 시, 조성변화, 화성, 반주부, 음역대의 분석을 통해 각 곡에서 표현하려는 이미지와 그가 사용한 작곡기법을 연구해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본 론

1. Richard Strauss의 생애 및 가곡 특징

(1) Richard Strauss의 생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는 1864년 6월 11일 뮌헨 궁정관현악단의 수석 호른연주자이자 왕립음악학교의 교사인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Franz Joseph Strauss)와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인 어머니 요제피네 프쇼어(Josephine Pschorr)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슈트라우스의 어머니가 양조업을 하던 친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그는 음악적 재능을 펼치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집안에서는 항상 음악이 맴돌아 훗날 그가 음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¹⁾

그는 4살 때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악보를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작곡도 했으며 피아노 외의 바이올린 연주도 했다. 그는 6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위한 폴카와 크리스마스 노래를 작곡했고, 8세 때에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김나지움(Gymnasium)²⁾을 거쳐 1882년 뮌헨 대학에 다니며 미학, 예술사, 철학을 공부했으나 두 학기 밖에 다니지 않아 졸업을 하진 못했다. 그 이후로 그는 베를린으로 여행을 떠났고 거기서 유명한 지휘자인 한스 폰 뷔로(Hans von Bülow, 1830~1894)를 만나 마이닝겐 궁정관현악단의 부지휘자로 취임한다. 이곳에서 그는 음악적으로 발전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한 오케스트라 악장이었던 알렉산더 리터(Alexander Ritter, 1833~1896)를 만나 아버

1) Marshall Cavendish Corporation 편. 「The Great Composer 12권」 (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p. 35.

2)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

지가 혐오했던 바그너와 리스트 등의 신독일악파³⁾ 음악에 눈을 뜨고 인정함으로써 그 음악들이 가진 의미와 힘을 인정하게 되며⁴⁾, 새로운 예술적 방향으로 걷게 된다.

그는 마이닝겐에서 다시 뮌헨으로 돌아온 후 여러곳에서 객원지휘를 하다가 1885년 현재 자주 연주 되고 있는 초기 가곡집인 『Acht Lieder(8개의 노래)』 Op.10을 작곡했고 1886년~1888년 사이에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을 작곡 했다.

1887년 8월에는 성악공부를 하고 있었던 소프라노 파울리네 데 아나(Pauline de Ahna)를 만났고 후에 그녀는 그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성악가이자 아내가 되었다.

1888년에 발표된 교향시 『Don Juan(돈 후안)』 Op.20은 당시 연주되었던 슈트라우스의 작품 중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1889년 10월 바이마르 궁정극장의 부지휘자로 취임과 동시에 『Don Juan』 의 성공에 힘입은 그는 『Tod und Verklärung(죽음과 변용)』 을 작곡했다.

그 이외의 주요 교향시 작품으로는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eiche(틸 오 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Op.28 (1895년), 『Also Sprach Zarathustra(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Op.30 (1896년), 『Don Quixote(돈 키호테)』 Op.35 (1897년), 『Ein Heldenleben(영웅의 생애)』 Op.40⁵⁾ (1898년) 가 있다.

1893년에는 그의 첫 오페라인 『Guntram(군트람)』 Op.25가 만들어졌지만 1회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연되지 않았다. 하지만 『Guntram』 에 파울리네가 출연을 하게 되는 계기로 가까워진 둘은 1894년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또한 1894년에는 오케스트라 반주로 된 첫 가곡 작품인 『Vier Gesänge(4개의 가곡)』 Op.33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그 전에 작곡했던 피아노 반

3) 음악적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했던 악파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 등이 있다.

4)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 p. 11.

5)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 p. 12.

주의 가곡들을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해 큰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⁶⁾

그 이후 그는 베를린에 정착하여 다시 오페라에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1905년 드레스덴에서 초연된 『Salome(살로메)』 Op.54가 크게 성공하면서 그는 41세 때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확립했다. 『Salome』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각지에서 상연되었으며 이 한 작품으로 인해서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로 인기를 얻었다. 이에 뒤이어 1908년에는 휴고 폰 호프만슈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의 대본으로 한 여자의 집념과 복수를 소재로 한 오페라 『Elektra(엘렉트라)』 Op.58을 작곡했다. 이 작품은 다조, 무조, 복합리듬과 같은 혁신적인 음악기법을 사용하였고⁷⁾ 오케스트라 편성 또한 대규모로 구성되었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오페라였다.

이미 이 두 오페라로 명성을 얻은 슈트라우스였지만, 다음 작품인 『Der Rosenkavalier(장미의 기사)』 Op.59야말로 슈트라우스의 ‘모차르트 오페라’라고 불릴 만큼⁸⁾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드레스덴에서의 초연은 말할 것도 없이 대성공이었으며, 다른 도시에서 오는 청중들이 많아 특별 열차를 준비해야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⁹⁾

1912년에는 『Ariadne auf Naxos(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Op.60이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만들어졌던 오페라보다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Ariadne auf Naxos』는 작은 규모였지만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오페라로 평가 받고 있다.

1899년부터 1906년 사이에는 가곡들이 가장 왕성하게 작곡되었으나 1905년 오페라 『Salome』의 성공 이후에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작곡하여 1917년까지 거의 가곡작곡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아내가 은퇴한 것도 하나의 이

6) 김연희, 「RichardStrauss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성남: 2010년), p. 5.

7) 민은기·신혜승 「Classics A to Z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세계, 2006), p. 341.

8) Marshall Cavendish Corporation 편, 「The Great Composer 12권」 (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p. 40.

9)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 p. 14.

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18년, 그의 가곡의 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이때 작곡되었던 가곡들은 20세기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Krämerspiegel(장사꾼의 거울)』 Op.66, 브렌타노(Brentano)의 시에 의한 『Sechs Lieder(6개의 노래)』 Op.68, 『Fünf kleine Lieder(5개의 작은 노래)』 Op.69 등이 있다.

1929년 그의 최고의 파트너인 대본가 호프만 슈탈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작품 활동은 잠시 주춤하게 된다. 하지만 10년 후 유태인이자 새로운 대본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를 만나게 되어 오페라 『Die Schweigsame Frau(말없는 여인)』 Op.80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독일에는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고, 많은 예술인들은 독일에 등을 돌렸지만 슈트라우스 자신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남았다.

나치 정권은 이것을 이용해 슈트라우스를 국가 음악국 총국장으로 임명했고, 그에게는 나치 정권을 묵인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츠바이크와 작업하는 것에만 열중했다. 하지만 바로 유태인작품 공연이 금지되면서 그는 나치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총국장직도 사임하게 되었다. 그 이후 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곡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1942년, 30년 만에 제일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Capriccio(카프리치오)』 Op.85를 발표했다. 이 작품을 통해 사라져가는 그의 명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7년 말부터 그는 심장장애를 일으켰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그는 1948년에 오케스트라 반주의 마지막 작품인 『Vier letzte Lieder(4개의 마지막 노래)』로 작곡생활을 끝냈고, 1949년 9월 가르미쉬 별장에서 “죽는다는 건 내가 『Tod und Verklärung』에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¹⁰⁾

10) Marshall Cavendish Corporation 편, 『The Great Composer 12권』(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

(2) Richard Strauss의 가곡 특징

시와 음악이 만나 이루어지는 Lied(가곡)은 19세기 때 독일 서정 시문학의 도래, 피아노의 보급, 사회적 정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성숙한 단계로 도달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계기로 독일 가곡은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말러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슈트라우스 또한 왕성한 가곡 작곡을 했던 작곡가로 19세기 후기낭만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는 200여 곡이 되는 가곡을 작곡했으며 그의 작품 목록을 봤을 때 가곡으로 시작해 가곡으로 끝났을 만큼¹¹⁾ 가곡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슈트라우스는 아내와 종종 ‘리더 아벤트(Lieder Abend)’¹²⁾를 들었고, 아내가 소프라노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곡 작곡을 했다. 그래서 그의 가곡은 대부분 소프라노를 위한 것이 많다.

그의 가곡의 특징을 선율, 화성, 시, 반주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율은 초기에 서정적인 것을 많이 썼으나, 후기에는 바그너의 영향으로 반음계적 선율과 낭송적인 선율의 가곡을 많이 썼다. 폭넓게 도약하는 멜로디와 유연하고 흐르는 선율은 그의 가곡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고 단어를 강조하는 상행, 하행하는 음정도약들은 가사를 잘 표현해 주었다.

화성은 낭만주의시대의 반음계화성과 잦은 전조들을 비중 있게 사용했다.¹³⁾ 반음계적 전조는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음악의 극적인 면을 확대시키기 위해 섬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한편 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했는데 다른 작곡가가 사용한 시나 시인보다는 자기의 기준으로 시를 골랐다. 당시 평가 받지 못했던 동시대 시인의 시를 선택한 것도 슈트라우스 가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하지

프,1993) p. 41.

11)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 p. 228.

12) 직역하면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며 연주회를 뜻한다.

13) 정복주, 채은희 「성악예술, 연주와 문헌」 (서울: 예술. 2009), p. 192.

14)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 p. 229.

만 이러한 이유로 그의 가곡은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는 시보다는 음악을 더 중시하여 다양한 표현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반주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요구했고 종종 성악부와는 독립적으로 다루어 반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말러와 더불어 오케스트라 반주의 가곡을 발전 시켰다는 것이 주된 업적이며 화려한 색채의 오케스트라 반주의 가곡은 슈트라우스만의 작곡 특징 이다.

전체적으로 그의 가곡은 풍부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고, 바그너적인 낭송조에서 부터 서정성, 그리고 콜로라투라까지 다양한 가창스타일을 추구했던 그는 가곡에서 오페라 아리아에 버금가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가곡 200여곡은 오랜 시간 많은 연주자들로부터 거의 다 연주되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 서정적이면서 때로는 오페라만큼이나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가곡은 성악가의 여러 가지 색깔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2. 연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연구

(1) 작품개요

슈트라우스의 연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은 1886년에서부터 1888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으로 그의 가곡 중 20대 전반에 쓰여진 초기작품에 속한다. 이 연가곡은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 펠릭스 단(Felix Dahn, 1834~1912)¹⁵⁾의 시를 가지고 작곡되었다.

이 연가곡은 Kornblumen(수레국화), Mohnblumen(양귀비), Epheu(담쟁이덩굴), Wasserrose(수련)의 네 가지 꽃을 소재로 삼고 이 꽃들을 각각 의인화하여 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반주부와 가사가 잘 어우러지면서 곡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제 1곡 Kornblumen(수레국화)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스타일의 곡이며 반주부의 부드러운 화성이 수레국화로 비유된 맑은 영혼의 소녀를 잘 묘사해주고 있고, 제 2곡 Mohnblumen(양귀비)는 화려한 꾸밈음을 사용해 양귀비의 강렬하고 화려한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제 3곡 Epheu(담쟁이덩굴)은 아르페지오 선율의 반주부를 사용함으로써 덩굴이 휘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담쟁이 덩굴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4곡 Wasserrose(수련)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 수련의 신비함과 물결위에 비치는 밤하늘의 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연가곡은 모든 곡이 간주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템포는 제 2곡을 제외

15) 독일의 역사가이자 문학가이다. 역사소설을 통해 독일 젊은이들에게 ‘게르만 민족의 본질’을 제시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드라마와 가극의 서정시를 창작 했다. 그가 지은 시들은 대부분 발라드 형식이지만 유명한 시는 독일 태고사를 주제로 한 운문체 서사시가 유명하다.

하고는 다소 느린편에 속한다. 연주시간은 대략 10분정도 소요되며 후기낭만의 전반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2) 제 1곡 Kornblumen (수레국화)¹⁶⁾

① 가사 해석

Kornblumen nenn' ich die Gestalten,
die milden, mit den blauen Augen,
die, anspruchslos, in stillem Walten
den Thau des Friedens, den sie saugen
aus ihren eignen, klaren Seelen,
mitteilen allem, dem sie nah'n,
bewusstlos der Gefühlsjuwelen,
die sie von Himmelshand empfah'n.
Dir wird so wohl in ihrer Nähe,
als gingst du durch ein Saatgefilde
durch das der Hauch des Abends wehe,
voll frommen Friedens und voll Milde,
voll frommen Friedens und voll Milde

나는 그 모습을 수레국화라 이름 짓다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모습으로
겸허히 고요함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맑은 영혼으로 흡수하는
평화의 이슬방울
하늘의 손으로부터 느낀
마음의 보석들을
가까운 것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녀와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저녁의 숨결이 훑날리는 것처럼
평화와 온화함이 충만해진다
평화와 온화함이 충만해진다

16) 독일의 국화이며 꽃말은 '행복함'을 뜻한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꽃으로 높이가 30~90cm이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가 다소 갈라지며 흰 솜털로 덮여있는 쌍떡잎식물이다.

② 악곡 분석

제 1곡 Kornblumen(수레국화)는 총 27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A(마디 1-15), B(마디 16-27)로 나눌 수 있다. A부분은 수레국화를 소녀로 묘사하고 있고 B부분은 그녀 곁에 있으면 축복이 함께한다고 예찬하고 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는 Andante 이며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에 알맞은 빠르기로 작곡가가 말하려는 수레국화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조성은 D^b Major이고 박자는 한마디를 제외하고 4/4로 유지된다.

<표 1> 제 1곡 Kornblumen 구조

형식	A	B
마디	1~15	16~27
조성	D ^b M	
박자	4/4	
빠르기	Andante (느리게)	

전주 없이 *p* 로 차분하게 곡이 시작되며 단조롭게 진행되는 성악선율과 반주부의 당김음이 잘 어우러지며 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당김음형은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반주부에 나오는데 음악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다.

가사를 잘 살펴보면 'Kornblumen nenn' ich die Gestalten'으로 한 행이 끝나야 되지만 노래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 행의 가사가 연결되면서 가사와 음악의 선이 일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사와 음악의 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것은 반주부 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주부는 부드럽게 연주하여 가사와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악보 1> 참고

<악보 1> 제 1곡 마디 1-4

Andante
p

Korn-blumen nenn' ich die Ge-stal-ten, die mil-den, mit den blau-en Au-gen, die,

마디 5-6에 나오는 가사 'in stillem(고요함 속에)'는 성악 선율이 상행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하면 소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단어의 의미와 알맞게 이 부분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며 불러야 한다. 또한 마디 6 후반부터 마디 7로 넘어가는 성악 부분과 반주의 베이스 부분이 서로 반진행 되면서 음정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saugen(흡수하다, 들이마시다)라는 단어의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마디 8-9는 이 노래 중 가장 최고음인 A^b가 나오는데, 이 최고음은 'Klaren Seelen(맑은 영혼)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써 수레국화의 이미지를 강조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고음이라고 하여 A^b을 큰 음량으로 내기 보다는 *mf* 정도 부르는 것이 곡의 분위기에 더 잘 어울린다. 또한 이 곡의 악상기호를 살펴보면 *p*, *pp* 이외에 다른 악상기호는 찾아 볼 수 없다. 가사 중 'milden(부드러운)', stilem(고요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악보 2>참고

<악보 2>제 1곡 마디 5-10

5
an - spruchslos, in stil - lem Wal - ten den Thau des Frie dens, den sie sau - gen aus
p 유지

8
ih - ren eignen, kla - ren See - len, mit - tei - len al - lem, dem sie
최고음

마디 10-13까지를 보면 반주부의 베이스 부분을 iii단화음의 으뜸음으로 바꾸어 반응계적으로 진행 시켰다. 이러한 기법은 일시적으로 f minor의 느낌을 주고 있고, 또한 박자가 4/4에서 4/3으로 변하면서 곡의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하지만 A 부분의 마지막인 마디 15에 나타난 V화음은 긴장감을 이완시켜주고 음악적으로는 한 단락이 끝나는 느낌을 준다.

자칫하면 너무나 단조로울 수 있는 화성진행을 전조가 아닌 단화음의 일시적인 사용으로 변화를 주었고 이와 함께 곡의 긴장과 이완을 형성하며 좀 더 유연한 곡 전개를 하고 있다. <악보 3> 참고

<악보 3> 제 1곡 마디 10-15

10
mit - tei - len al - lem, dem sie nah'n, be - wusst - los der Ge - fühl - ju - we - len, die sie vou

10
pp

14
Him - mels - hand em - pfah'n.

14

iii 단화음

200

마디 16이 시작되는 B부분에는 *sehr ruhig*(아주 잔잔하게) 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A부분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디 16-18을 보면 기본적인 반주형태인 당김음을 잠시 사용하지 않고 성악부와 반주부가 서로 주고 받으며 대화하는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8 마디부터는 성악부와 반주부가 동일한 선율로 같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가사 ‘als gingst du durch ein Saatgefilde(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처럼)’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주고 음악을 더욱 더 서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 곡의 최고음인 A^b이 마디 18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 이 음은 절정이라고 하기에 음길이 너무 짧아 박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악보 4>참고

<악보 4> 제 1곡 마디 16-19

16 *sehr ruhig* 아주 잔잔하게 *pp* Unison 진행

Dir wird so wohl - in ih-rer Nä - he, als gingst du durch ein Saat-ge - fil - de, durch das der

16 *pp* *espr.* *pp*

Reo. * Reo. * Reo. * Reo. *

B부분의 중요 가사인 ‘voll frommen Friedens und voll Milde(평화와 온화함이 충만해진다)’가 두 번 반복 되면서 노래 선율은 하행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반면에 반주부에 나오는 아르페지오는 상행을 하게 된다. 오른손 상행 아르페지오는 곡 전체의 분위기인 부드러움을 끝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마디 19의 가사 ‘durch das der Hauch des Abends wehe(저녁의 숨결이 훑날리는 것처럼)’의 숨결이 훑날리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고음역의 아르페지오 반주부는 음악적으로 *ritardando* 효과를 얻어 자연스럽게 수레국화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남기며 곡을 마무리 짓는다. <악보 5> 참고

<악보 5> 제 1곡 마디 19-27

19
fil - de, durch das der Hauch des A - bends we - he, voll from-men

19
espr.
pp

22
Frie - dens und voll Mil - de, voll from-men Frie - dens und voll

22

25
Mil de.

25
rit.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usical score: The score is for a vocal and piano piece in a minor key (three flats).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has a steady bass line with chords in the right hand. Red circles highlight specific chords in the piano's right hand: one at measure 19, and three at measure 22, and five at measure 25. The tempo markings include *pp* (pianissimo) and *rit.* (ritardando).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describe a scene of evening peace and stillness.

(3) 제 2곡 Mohnblumen (양귀비)17)

① 가사 해석

Mohnblumen sind die runden,
rotblutigen, gesunden,
die sommer spross gebräunten,
die immer froh gelaunten
kreuzbraven, kreuzfidelen,
tanz nimmer müden Seelen;
die unterm Lachen weinen
und nur geboren scheinen,
die Kornblumen zu necken
und dennoch oft verstecken
die weichsten, besten Herzen,
im Schlinggewächs von Scherzen,
die man, weiss Gott, mit Küssen
ersticken würde müssen,
wär'man nicht immer bange,
umarmest du die Range,
sie springt ein voller Brander
aufflammend auseinander!

양귀비는 둥글고
빨갭고 건강한 꽃이다
여름 햇살에 그을리고
언제나 기분 좋은
참되고 명랑한,
결코 지치지 않고 춤을 추는 영혼이다
웃음 안에서 눈물 흘리고
단지 수레국화를 조롱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가슴에 꼭 감추고 있다
익살스러운 덩굴 안에
신도 알고 있다, 그것에 입을 맞추면
숨이 멎을 수밖에 없는 것을
겁내지 않고 따뜻하게
그 말광량이(양귀비)를 껴안는다면
그것은 사방으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분리되어 피어난다!

17)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으로
앵숙, 약담배, 아편꽃 이라고도 불린다. 높이가 50~150cm되며, 5~6월에 흰색, 붉은색, 자주색 등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지고 피며 아시아 열대, 온대 지방과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익지 않은 열매에 상처를 내어
받은 유즙을 6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아편인데 이것을 담배와 함께 피면 마취 상태에 빠져 몽롱
함을 느끼고 습관성이 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② 악곡 분석

제 2곡 Mohnblumen(양귀비)는 전체 32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A(마디 1-12), B(마디 13-22), C(마디 14-32)로 나눌 수 있다. A부분은 양귀비의 외적인 화려함을 묘사하고 있고, B부분은 그 화려함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귀비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C부분은 양귀비를 불꽃으로 비유하여 양귀비의 강렬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는 Allegro giocoso이며 연가곡 4곡 중 유일하게 빠른 템포가 사용되었다. 제 1곡과는 다르게 잦은 전조를 사용하고 있고 트릴과 짧은 꾸밈음 등을 이용해 화려하고 강렬한 양귀비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성은 G Major이며 박자는 변박 없이 4/3로 통일되어 있다.

<표 2> 제 2곡 Mohnblumen 구조

형식	A	B	C
마디	1~12	13~22	14~32
조성	G-b-D	D-e-a-E ^b -B	B-G
박자	4/3		
빠르기	Allegro giocoso(빠르고 즐겁게)		

제 1곡과 다르게 짧은 전주로 곡이 시작된다. 쉼표, 트릴, 꾸밈음, 스타카토,

짧은 음들과 함께 양귀비의 화려함을 묘사해주고 있다. 이 짧은 전주는 이 곡 반주부에 종종 나오는데, 양귀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음형이다.

마디 2의 성악부는 쉼표 사용으로 인해 약박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가사 위에 지시된 *f* 때문에 강박의 효과를 내면서 양귀비의 강렬함과 화려한 이미지에 맞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 <악보 6> 참고

<악보 6> 제 2곡 마디 1-3

Allegro giocoso.

Mahn - blu - men sind die

마디 7-10의 반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디 7-8, 마디 9-10 이렇게 두 단

위로 묶을 수 있다. 마디 7과 마디 8은 같은 화성과 같은 음형을 반복하고 있고, 마디 9와 마디 10은 같은 음형을 반복하였으나 그 앞의 두 마디와는 다른 화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가사에 있는데 마디 7에서 쓰인 가사 'die sommer spross gebraunten(여름 햇살에 그을리고)',와 마디 8에서 쓰인 가사 'die immer froh gelaunten(언제나 기분 좋은)'가 정관사 'die'로 시작하여 같은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디 9의 가사 'kreuzbraven(참되고)'와 마디 10의 가사 'kreuzfidelen(명량한)'도 'kreuz'로 시작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화성과 음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의 4마디 모두 마디 12에 나오는 'Seelen'을 꾸며주는 말들로 양귀비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귀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일성 있게 표현하고자 유사한 음형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악보 7> 참고

<악보 7> 제 2곡 마디 4-12

4
run - den. rot - blu - ti - gen, ge - sun - den, die

4
ff
poco

7
sommer spross ge - brauten, die im - mer froh ge - laun - ten, kreuz - bra - ven,

7
mf

10
kreuz - fi - de - len. tanz - nim - mer - müden See - len;

10
mf *dim.*
poco

B부분에서는 A부분과 다르게 양귀비의 내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디

13을 살펴보면 가사 ‘die unterm Lachen weinen(웃음안에서 눈물흘리고)’ 중 ‘Lachen(웃다)’ 와 ‘weinen(울다)’를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음계적 하행을 사용해 비애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마디 15의 반주부를 살펴보면 A부분에서 양귀비를 묘사했던 음형을 세 마디로 늘려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양귀비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또한 마디 15부터 마디 22까지 제 1곡에서 주요 모티브로 사용했던 당김음형을 반주부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양귀비의 내면적인 모습이 수레국화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8> 참고

<악보 8> 제 2곡 마디 15-22

13 *p* 반음계적 하행
die un - term La - chen wei - nen

15 *espr.*
und nur ge - bo - ren scheinen, die Korn - blumen zu ne - cken,

18 *espr.*
und den noch oft verstecken die weichsten, be - sten Her - zen,

21 *espres.*
im Schling - gewächs von Scher - zen;

23 *dim.*

마디 19-20까지는 B부분의 절정부분이다. 가사 'die weichsten, besten

Herzen(가장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양귀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을 강조한 부분이다. 성악부에서 *espr.* 와 두 마디에 걸친 이음줄을 볼 수 있는데, 가사의 뜻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레가토로 노래해야 하며 반주부에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연주하여 성악부를 도와야 한다.

<악보 9> 참고

<악보 9> 제 2곡 마디 19-20

19 *espr.* die weichsten, be - sten Her - zen,

19 *espres.*

Ped.

C 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23부터는 트릴과 꾸밈음으로 이뤄졌던 반주음형이

다시 등장하면서 양귀비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마디 22부터 시작된 왼손 반주 b-c-c#-d-d# 의 반음계적 진행은 마디 25에 나오는 가사 ‘ersticken(질식하다, 숨막히다)’를 향해 진행되면서 가사의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디 25부터는 반주부와 성악부가 함께 상행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곡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10> 참고

<악보 10> 제 2곡 마디 23-26

마디 27의 *pp* 와 *poco calando*(점점 느리게) 의 지시는 마디 29의 *ff* 와 *a tempo* 의 지시와 아주 대조적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다이내믹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디 27-28부분은 절정 직전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최고로 들어날 수 있게 표현해야 하나 절제된 소리로 레치타티보를 하듯이 해야 한다.

마디 29의 반주부를 보면 코드로 짧게 연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사 ‘sie springt ein voller Brander(그것은 사방으로 타오르는 불꽃처럼)’의 불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된다. 또한 마디 29부터 성악부를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마디

30에 나타나는 이 곡의 최고음인 B으로 도약하면서 가사 ‘aufflammend(타오르다)’를 강렬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마지막 후주에서는 전주에서 사용했던 이 곡의 주요 음형을 *ff* 로 지시하면서 다시 한 번 양귀비의 화려함과 강렬함을 묘사해주며 마무리 짓는다.

<악보 11> 참고

<악보 11> 제 2곡 마디 27-3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7-32.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measures 27-28)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pp* dynamic and a *poco calando* tempo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a *ppp* dynamic and also has a *poco calando* marking. The second system (measures 29-32)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ff* dynamic and an *a tempo*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a *ff* dynamic. There are several annotations: a red circle around the *pp* dynamic, a red box around the *poco calando* marking, a red circle around the highest note in the vocal line (measure 28), a red oval around the *ff* dynamic in the piano accompaniment (measure 29), and a red box around the *ff* dynamic and the final notes in the piano accompaniment (measures 31-32). The lyrics are: 'wär'man nicht im - mer ban - ge, um - ar - mest du die Ran - ge, sie springt ein vol - ler Brander auf - flammend aus - ein - an - der!'. The word '최고음' (highest note) is written above the circled note in measure 28. The word 'Leo.' is written below the piano accompaniment in measures 27, 28, 29, and 31. There are also asterisks in measures 28, 29, and 31.

(4) 제 3곡 Epheu (담쟁이덩굴)¹⁸⁾

① 가사 해석

Aber Epheu nenn' ich jene Mädchen
mit den sanften Worten,
mit dem Haar, dem schlichten, hellen
um den leis' gewölbten Brau'n,
mit den braunen seelenvollen Rehenaugen,
die in Tränen steh'n so oft,
in ihren Tränen grade sind unwiderstehlich;
ohne Kraft und Selbstgefühl,
schmucklos mit verborg'ner Blüte,
doch mit unerschöpflich tiefer,
treuer inniger Enpfindung
können sie mit eigener Triebkraft
nie sich heben aus den Wurzeln,
sind geboren, sich zu ranken
liebend um ein ander Leben:
an der ersten Lieb'umrankung
hängt ihr ganzes Lebens schicksal.
denn sie zählen zu den seltnen Blumen,
die nur einmal blühen.

그러나 나는 저 소녀를 담쟁이라 부른다.
온화한 말소리
매끄럽고 밝은 색의 머리카락
예쁜 둥근 눈썹에
영혼으로 깃든 노루 같은 갈색 눈동자는
종종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눈물에 반항하기 어렵다
힘과 자신감도 없이
소박한 꽃송이들을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한없이
마음속 깊이 성실함을 가졌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뿌리박고 일어날 수 없어
덩굴을 휘감을 수 있는
다른 삶을 필요로 한다.
처음으로 감겨 올려진 사랑에
모든 운명이 걸려있다.
왜냐하면 오직 희귀한 꽃이
단 한번만 피기 때문이다.

18) 담쟁이덩굴은 포도과로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란다. 길이는 10m 이상 뻗고 잎은 어긋나 있으며 가을에는 붉게 단풍 든다. 담벽이나 바위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으며 꽃은 양성화이며 6~7월 사이에 황록색으로 꽃을 피운다.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② 악곡 분석

제 3곡 Epheu(담쟁이덩굴)은 전체 41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A(마디 1-16), B(마디 17-30), C(마디 31-41)로 나눌 수 있다. A부분은 담쟁이덩굴에 비유된 소녀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B부분은 다른 삶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담쟁이덩굴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 C부분은 담쟁이덩굴이 한번만 꽃을 피우는 진귀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는 Moderato이며 아르페지오 반주부를 이용해 담쟁이덩굴이 휘감겨 오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조성은 E^bMajor이며 잣은 전조가 일어나고 박자는 4/4로 시작되기는 하나 시의 불규칙적인 운율로 인해 변박이 많다.

<표 3> 제 3곡 Epheu 구조

형식	A	B	C
마디	1~16	17~30	31~41
조성	E ^b -A-a-B ^b -E ^b	E ^b -G ^b -E ^b	E ^b -A-E ^b
박자	4/4(잣은변박)		
빠르기	Moderato(보통빠르기로)		

마디 5부터 마디 9까지는 담쟁이덩굴에 비유된 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마디 9까지는 I-IV-V-I의 안정된 화성을 사용하고 있고 베이스 음이 E^b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sanften Worten(부드러운 목소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3> 참고

<악보 13> 제 3곡 마디 5-9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5-9. It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5-6,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7-9. Each system has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grand staff).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consistent bass line of E-flat in the left hand and triplets in the right hand. The lyrics are: 'mit den sanften Worten, mit dem Haar, dem schlichten, hellen um den leisergewölbten Braun, mit den'. There are red circles around the E-flat notes in the bass line of the piano part in measures 5, 6, 7, 8, and 9. Asterisks are placed below the piano part in measures 6, 7, 8, and 9.

마디 10 부터는 담쟁이덩굴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마디 10의 성악부와 반주부의 선율이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가사 ‘seelenvollen(영혼으로 깃든)’의 뜻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마디 10부터는 E^b이외의 다른 베이스음을 사용함으로써 조성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마디 12에서는 a minor로 전조하면서 가사 ‘die in Tränen steh'n so oft(중
 중 눈물을 머금고 있는)’ 내용을 더욱 더 연약하고 슬프게 나타내었다.

마디 14-15는 가사 ‘unwiederstehlich(반항하기 어려운)’ 를 당김음과 엑센트
 를 이용하여 뜻을 부각시키고 마디 16을 딸림조인 B Major로 종지하여 A부분
 을 마무리 한다. <악보 14>참고

<악보 14> 제 3곡 마디 10-16

10
 brau - nen see - len - vol - len Re - hen - au - gen.

12
 die in Trä - nen steh'n so oft, in ih - ren

14
 Trä - nen gra - de sind un - wi - der - steh - lich; oh - ne

마디 16

부터 마디 19까지 반주부의 베이스 음이 점점 B^b-A^b-G^b-F 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사 ‘ohne Kraft und Selbstgefühl, schmucklos mit verborg'ner Blüte(힘과 자신감도 없이 소박한 꽃송이들을 숨기고 있지만)’의 뜻처럼 담쟁이덩굴의 소극적인 모습을 *p* 와 *dim.*로 함께 표현해 주고 있다. 하지만 마디 19의 가사 ‘doch(그러나)’의 사용으로 다시 상반된 내용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espr.*라는 지시와 함께 마디 22까지 담쟁이덩굴의 내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가사 ‘doch mit unerschöpflich tiefer, treuer inniger Enpfindung(그래도 한없이 마음속 깊이 성실함을 가졌다)’를 풍부한 선율과 화성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마디 21에 나오는 시어 ‘treuer(성실함, 정직함)’를 단7도로 도약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담쟁이덩굴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내면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 15> 참고

<악보 15> 제 3곡 마디 16-22

16 *p* *espr.*
 steh - lich; oh-ne Kraft und Selbst gefühl, schmucklos mit ver - borg' - ner Blü - te, doch mit

16 *p*
 un - er schöpflich tie - fer, treu - er in - ni - ger En pfin - dung

20 단7도 도약

20 *dim.*

마디 23부터 반주부의 베이스 음을 살펴보면 F-E^b-D[♯]-D^b-C로 하행진행하면서 곡을 이끌어 가고 있고 *p* 를 시작으로 하여 *poco cresc.* 를 사용해 마디 29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마디마다 박자의 잦은 변화를 주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마디 29에서는 이곡의 최고음인 A^b가 나타나는데, 이 음을 반주부의 B^b가 깊은 음색을 내며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마디 26, 28, 29의 성악선율을 살펴보면 음폭이 넓게 도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혼자서 뿌리박고 살 수 없는 담쟁이덩굴의 특성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디 30을 살펴보면 화음이 I로 끝나 종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가사를 살펴보면 옆에 : (콜론) 표시가 있어 뒤에 부연설명이 더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청중이 듣기에는 음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연주자들은 음악의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마디를 준비해야 한다. <악보 16> 참고

<악보 16> 제 3곡 마디 23-30

23 können sie mit eig - ner Treib - kraft nie sich he-ben aus den

23 *p* *poco cresc.*

26 *cresc.* Wur - zeln, sind ge - bo - ren, sich zu ran - ken

26 *f* 최고음

29 lie - bend um ein an - der Le - ber

29 *f* *dim.*

Leo

C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31부터는 연약하고 귀한 꽃을 피우는 담쟁이덩굴을 묘사하고 있다. *pp* 로 진행되던 반주부가 마디 35부터는 *ppp* 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가사 ‘denn sie zählen zu den seltenen Blumen die nur einmal blühen(왜냐하면 오직 희귀한 꽃이 단 한번만 피기 때문이다)’의 뜻에서 말해주듯이 아주 작은 음량으로 희귀한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또한 마디 37의 성악부를 보면 음 G을 길게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einmal(한번)’이라는 뜻이 강조 되어 오직 한번만 꽃을 피우는 귀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디 39부터 마디 40까지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해 담쟁이덩굴이 끝없이 휘감겨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마디 41에서는 전주와 같은 음형을 사용하여 곡을 마무리 짓고 있다. 특히 마디 41은 I 화음의 5음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끝없이 휘감겨 올라가는 담쟁이덩굴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음악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악보 17> 참고

<악보 17> 제3곡 마디31-41

31 *p*
an der er - sten Lieb - um - ran - kung hängt ihr gan - zes

34 *pp*
Le - bens schicksal. denn sie zäh - len zu den

36 selt - nen Blu - men, die nur ein - mal

39 bl - hen.

ppp *riten.*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Measure numbers 31, 34, 36, and 39 are indicated at the start of each system. The piano part features several triplet figures. Dynamic markings include *p*, *pp*, and *ppp*. A *riten.* (ritardando) marking is present in measure 39. There are red circles around the notes G4 in measure 36 and G4 in measure 39.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in measure 41.

(5) 제 4곡 Wasserrose (수련)¹⁹⁾

① 가사 해석

Kennst du die Blume, die märchenhafte,
sagengefeierte wasserrose?
Sie wiegt auf ätherischem, schlanken Schafte
das durch sicht'ge Haupt, das farbenlose,
sie blüht auf schilfigem Teich im Haine,
gehütet vom Schwan,
der umkreiset sie einsam,
sie erschliesst sich nur dem Mondenscheine,
mit dem ihr der silberne Schimmer gemeinsam:
So blüht sie,
die zaub'rische Schwester der Sterne,
um schwärmt von der träumerisch dunklen
Phaläne,
die am Rande des Teichs sich sehnet von ferne,
und sie nimmer erreicht wie sehr sie sich sehne.
Wasserrose, so nenn' ich die schlanke,
nachtlock'ge Maid,
alabastern von Wangen,
in dem Auge der ahnende tiefe Gedanke,
als sei sie ein Geist und auf Erden gefangen.
Wenn sie spricht,
ist's wie silbernes Wogenrauschen,
wenn sie schweigt,
ist's die ahnende Stille der Mondnacht;

너는 저 꽃을 아는가
저 환상의 전설적인 꽃 수련을?
맑고 긴 꽃줄기 위로
무채색의 머리를 흔드는
숲속 갈대가 무성한 연못에서
고독하게 빙빙 돌면서
백조의 감시 속에 피어나는
그녀는 달빛아래에서 피어나네
은빛으로 빛나는 미광과 함께
그렇게 피어나네
마법의 별과 자매 같은 그녀
꿈같은 밤 나방들에게 둘러 쌓인채
연못가에 앉아 먼 곳을 보지만
그리운 곳에 닿지를 못 하네
나는 수련이라고 부르네
가늘고 짙은 색의 곱슬머리 소녀를
눈같이 흰 두 볼
깊은 생각이 담긴 두 눈
땅에 사로잡힌 영혼과도 같네
그녀가 말을 하면,
은빛물결이 출렁거리네
그녀가 침묵 하면,
달밤은 고요해지네

19) 여러해살이 수중식물로 굵고 짧은 땅속줄기에서 많은 잎자루가 자라서 물 위에서 잎을 편다. 5~9월에 수면 위에서 꽃이 피고 피었다 닫았다를 3일 동안 반복한다. 꽃은 흰색이며 긴 꽃자루 끝에 1개씩 달린다. '청순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시베리아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

sie scheint mit den Sternen Blicke zu tauschen,
deren Sprache die gleiche Natur
sie gewohnt macht;
du kannst nie ermüden ins Aug' ihr zu schau'n,
das die seidne, lange Wimper umsäumt hat,
und du glaubst, wie bezaubert von seligem
Grau'n,
was je die Romantik
von Elfen geträumt hat.

그녀는 별과 시선을 같이하고
별과 동일한 자연의 언어로
친숙하게 되네
긴 속눈썹에 둘러싸인
눈동자를 싫증내지 못하리
또한 그녀의 행복한
매력을 믿게 되며
오래전부터 동화 속 요정이 무엇을
꿈꾸어왔는지 알게되리.

② 악곡 분석

제 4곡 Wasserrose(수련)은 이 연가곡 중 시의 길이가 가장 길고 전체 65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A(마디 1-49), B(마디 50-65)로 나눌 수 있다. A 부분은 달빛을 받고 피어나는 수련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했고, B 부분은 싫증낼 수 없는 아름다운 눈을 지닌 소녀에 대해 묘사 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는 Larghetto이며 색채감 있는 화성을 사용해 수련의 신비함을 나타냈다. 조성은 $f^{\#}$ minor며 잦은 전조가 일어나고 박자가 성악부는 6/8, 반주부는 2/4로 시작되어 B부분에서 12/8로 통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4> 제 4곡 Wasserrose 구조

형식	A	B
마디	1~49	50~65
조성	$f^{\#}-B^b-f^{\#}-c^{\#}-f^{\#}$	$F^{\#}-B^b-F^{\#}$
박자	6/8 (성악부) 2/4 (반주부)	12/8
빠르기	Larghetto(약간느리게)	

한 마디의 전주로 시작되는 제 4곡은 A부분이 성악부와 반주부가 서로 다른 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성악부는 6/8박자, 반주부는 2/4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박자를 사용하고 있어도 같이 두 박자 계통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성악부와 반주부는 서로의 리듬을 똑같이 맞추기 보다는 자신의 박자 틀 안에서 각 자의 리듬을 지켜가며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디 1의 반주부를 보면 *una corda* 라는 지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의 왼쪽 약음 페달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기호로 이러한 지시어 사용은 달빛 아래에 피어있는 연약한 수련을 작음 음량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물 위에 가볍게 떠있는 수련을 묘사하기 위하여 반주부를 스타카토 아르페지오로 사용하였는데, 스타카토의 끊어짐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마디 2-3까지의 가사 ‘Kennst du die Blume(너는 그 꽃을 아는가?)’와 마디 5-6까지의 가사 ‘sagengefeierte wasserrose?(저 환상의 전설적인 꽃 수련을?)’을 살펴보면 의문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끝에 2도씩 올려주어 의문의 표현을 나타냈으며, 끝나는 음가를 8분음표로 짧게 처리하고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더 뚜렷하게 질문의 느낌을 강조했다. <악보 18>참고

<악보 18> 제 4곡 마디 1-6

Larghetto *p* 단2도

Kennst du die Blu - me, die

8va

una corda *pp*

3

3

3

3

3

3

3

장2도

mär - chen - haf - te, sa - gen - ge - fei - er - te Was - ser - ro - se?

(8va)

3

3

3

3

3

3

* *leg.* *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includ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two sharps (F# and C#), and a time signature of 6/8. The tempo is marked 'Larghetto' and the dynamics are 'p'. The lyrics are 'Kennst du die Blu - me, die'. A red box highlights the first measure of the vocal line, and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second measure, with the label '단2도' (Interval 2) written above it.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same key and time signature, with a dynamic of 'pp' and the instruction 'una corda'. It features a triplet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steady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has a treble clef and the key signature remains two sharps. The lyrics are 'mär - chen - haf - te, sa - gen - ge - fei - er - te Was - ser - ro - se?'. A red box highlights the final measure of the vocal line, with the label '장2도' (Interval 2) written above it.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ame triplet pattern. The piece ends with a double asterisk and the instruction '* leg. *'.

마디 7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수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반주부는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성악부는 도약과 반음계적 진행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 없이 성악부가 자유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주부는 성악부를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마디 21-22를 보면 전조가 일어나는데, 마디 21의 D^\sharp 와 마디 22의 E^b 가 이명동음인 것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전조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성이 f^\sharp minor에서 B^b Major 바뀌었고 수련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다.

<악보 19> 참고

<악보 19> 제 4곡 마디 7-23

7 Sie wiegt auf ä - the - rischem, schlan-ken Schafte das durch schi't'ge Haupt, _____ das

7 (8^{va})

11 far - ben-lo - se, sie Blüht - auf schil - fi - gem Teich - im Hai-ne, ge - hüt - tet vom

11 (8^{va})

16 Schwan, der um - krei - set sie ein - sam, sie er - schliesst sich nur dem

16 (8^{va})

20 Mon - den-schei-ne, mit dem ihr der sil - ber - ne Schimmerge - mein - sam:

20 (8^{va})

이명동음, B♭M로 전조

마디 24-37까지는 먼 곳을 그리워 하나 도달하지 못하는 수련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반주부를 보면 앞에서 계속 진행되어오던 동일 음형을 사용하다가 사이사이에 J. J.의 리듬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적인 느낌을 강조해 주고 있다. 또한 마디 32-33의 오른손 반주부를 살펴보면 $f^{\#}-g^{\natural}-g^{\#}-a-a^{\#}-b$ 로 반음계적 옥타브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가사 ‘die am Rande des Teichs sich sehnet von ferne, und sie nimmer erreicht wie sehr sie sich sehne(연못가에 앉아 먼 곳을 보지만 그리운 곳에 닿지를 못 하네)중 그리운 곳으로 가고 싶은 수련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마디 32-33의 성악부를 보면 $f^{\#}$ 에서 지속한 후 반음씩 하행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운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디 36-37을 살펴보면 *dim*와 *poco ritard.* 의 지시를 볼 수 있는데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다시 곡이 시작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악보 20> 참고

<악보 20> 제 4곡 마디 24-37

24 So blüht sie, die zaub'rische Schwester der Ster - ne, um-

28 schwärmt - von der träu-me-risch dunklen Pha - lä - ne, die am

31 Ran - de des Teichs sich seh - net von fer - ne, und sie

34 nim - mer er - reicht wie sehr sie sich seh - ne. *poco ritard.*

마디

3 8 을

보면 *a tempo* 의 지시와 함께 앞에서 사용한 동일 음형이 다시 나타난다. 앞에서는 수련을 묘사했다면 마디 38-49까지는 수련을 소녀에 비유해 요정 같은 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의 중요부분은 마디 46-49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 'als sei sie ein Geist und auf Erden gefangen(땅에 사로잡힌 영혼과도 같네)의 중요 시어인 'Geist(영혼)를 온음으로 지속시켜 강조했다. 또한 마디 48-49에 걸쳐 단9도의 넓은 도약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혼을 낮은 음을 통해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수련이 땅에 붙들린 요정으로 비유되며 A부분이 마무리가 된다.

<악보 21> 참고

<악보 21> 제 4곡 마디 38-49

38 *a tempo*

Was - ser ro - se, so nenn' ich die schlan-ke, nacht lock'-ge Maid, a - la - ba - stern von

38 *pp*

42

Wan - gen, in dem Au - ge der ah - nen-de tie - fe Ge - dan - ke,

42

46 als sei sie ein Geist und auf Er-den ge - fan - gen.

단9도 도약

ppp *legatissimo*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oice and piano.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38-41) features a vocal line with the lyrics 'Was - ser ro - se, so nenn' ich die schlan-ke, nacht lock'-ge Maid, a - la - ba - stern von' and a piano accompaniment with triplets and a 'pp' dynamic marking. The second system (measures 42-45)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Wan - gen, in dem Au - ge der ah - nen-de tie - fe Ge - dan - ke,' and the piano accompaniment. The third system (measures 46-49) shows the vocal line with 'als sei sie ein Geist und auf Er-den ge - fan - gen.' The word 'Geist' is circled in red. The interval between the notes 'ein' and 'Geist' is circled in red and labeled '단9도 도약' (interval of a ninth). The piano accompaniment in the third system includes a 'ppp' dynamic marking and the instruction 'legatissimo'. There are also 'Lea.' markings and asterisks in the piano part.

B부분은 마디 49의 6/8박자 연결로 인해 마디 51부터 자연스럽게 12/8박자로 변하여 성악부와 반주부가 동일한 박자로 진행된다. 또한 f[#] minor에서 F[#] Major로 자연스럽게 전조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마디 51부터 트릴과 트레몰로로 진행되는 반주부를 사용하여 마디 51-52의 가사 'Wenn sie spricht, ist's wie silbernes Wogenrauschen(그녀가 말을 하면, 은빛물결이 출렁거리네)' 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이 반주부는 출렁거리는 은빛물결위에 비쳐 반짝이는 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B 부분의 주된 음형이기도 하다. 마디 52에서는 *sehr ruhig*(아주 잔잔하게) 와 *ppp* 의 지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사 'wenn sie schweigt(그녀가 침묵하면)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고요히 연주되어야 하고 앞의 부분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또한 마디 52의 끝음 A[#]와 마디 53의 첫음 B^b의 이명동음을 사용해 B^b Major로 전조가 되었는데, 전조가 됨 동시에 위에서 말했듯이 앞부분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악보 22> 참고

<악보 22> 제 4곡 마디 49-54

48 und auf Er-den ge - fan - gen. Wenn sie

48 *ppp* *legatissimo*

51 아주 잔잔하게 *sehr ruhig*

51 spricht, ist's wie sil - ber-nes Wo - gen - rau - schen, wenn sie schweigt,

53 ist's die ah-nen-de Stil - le der Mond - nacht; sie scheint mit den

53 *ppp*

마디 57에서는 다시 전조가 일어나 F[#]Major로 조성이 바뀌었으며 마디 58부터는 기존 음형에 새로운 라인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마디 57-60까지의 가사 'du kannst nie ermüden ins Aug' ihr zu schau'n, das die seidne, lange Wimper umsäumt hat(긴 속눈썹에 둘러싸인 눈동자를 싫증내지 못하리) 중 결코 싫증낼 수 없는 아름다운 요정에 비유된 수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양손의 반주부가 같은 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주해야 한다.

마디 62에서는 가사 'je(오래전부터)'의 음을 길게 연주하여 단어에서 오는 뜻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으며 마디 63의 가사 'Elfen(요정)'을 옥타브 도약하여 가사를 극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신비로운 수련의 여운을 남기게끔 짧게 두 마디의 후주로 표현하며 곡을 마무리 짓고 있다. <악보 23-1,2> 참고

<악보 23-1> 제 4곡 마디 57-65

57 *espressivo*
 wohnt macht; du kannst nie er -

57 *8va*

58
 mü - den ins Aug' ihr zu

58 *espress.*

59
 schau'n, das die seid - ne, lan - ge Wim - per um -

59

60
 säumt hat, und du glaubst, wie be -

60 *pp*

<악보 23-2> 제 4곡 마디 57-65

61
zau - bert von se - li - gem Grau'n, was

61
ppp

62
je die Ro - man - tik von

62
ppp

63
El - fen ge -

63
ppp

64
träumt hat.

64
pp
espr.

64
ppp

Ⅲ. 결 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왕성한 가곡 작곡을 했던 작곡가로 19세기 후기낭만의 중요한 작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의 가곡은 초기에는 서정적인 선율의 작품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아 반음계적 선율과 낭송적인 선율의 가곡들이 많았다. 또한 그는 동시대 작곡가인 볼프와 말러와는 다르게 시와 음악에 있어서 음악에 더 중점을 두어 작곡을 하고 시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선택 하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는 슈트라우스의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곡으로 Kornblumen(수레국화), Mohnblumen(양귀비꽃), Epheu(담쟁이덩굴), Wasserrose(수련)의 4가지 꽃을 소재로 삼아 의인화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제 1곡 Kornblumen(수레국화)는 안정된 화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레국화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p* , *pp* 의 다이내믹을 사용했다. 또한 당김음 패턴의 반주부는 음악과 시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악부가 서정적인 선율을 그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제 2곡 Mohnblumen(양귀비꽃)은 트릴과 꾸밈음,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양귀비꽃의 화려함과 강렬함을 나타냈고, 또한 잦은 전조와 반음계적 선율의 진행, 대조적인 다이내믹의 변화를 사용하여 시의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제 3곡 Epheu(담쟁이덩굴)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아르페지오 반주부를 이용해 담쟁이덩굴이 휘감겨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시의 운율로 인하여 변박이 많다. 그러나 곡 전체가 안정적이면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제 4곡 Wasserrose(수련)은 수련의 신비하면서도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 색채감 있는 화성을 사용하고 성악부와 반주부가 서로 다른 박자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뒷부분의 트레몰로를 이용한 반주부를 사용해 시의 내용을

잘 표현하였으며 동명이음을 이용해 전조를 교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슈트라우스는 자연의 소재를 사용해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여러 가지 음형, 화성, 반주부를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후기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실주의적, 자연주의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반주부가 곡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준다는 것과, 성악부의 선율과 시가 잘 어우러져 꽃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의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주자들은 그 표현기법을 이해하고 곡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살려 연주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서 곡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민은기, 신혜승. 「Classics A to Z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세계, 2006년.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R.슈트라우스」. 서울: 음악세계, 2002년.
정복주, 채은희. 「성악예술, 연주와 문헌」. 서울: 예술, 2009년.
태림출판사. 「세계음악가전집 R. Strauss」. 서울: 태림출판사, 1978년.

2. 국외서적(번역서적 포함)

- 심송학 역(Gorrell, Lorrain). 「19세기 독일가곡(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서울: 음악춘추사, 1999년.
채은희 역(Kimbell, Carol). 「Song (하권)」.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년.
황화자 역(Miller, Richard). 「소프라노를 위한 성악기법(Training Soprano Voices)」.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년.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국 역(Marshall Cavendish cop.). 「The Great Composer 12 권」. 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년

3. 사전류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편. 「음악 용어 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년.
양도원 교수 편. 「아바벨 독한사전」. 서울: 도서출판 아바벨, 1998년.
Sadie, Stanle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년.

4. 학위논문

- 강정아. 「Richard Strauss의 <Mädchenblumen> (꽃소녀) op.22에 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2009년.

김연희. 「Richard Strauss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성남: 2010년.

윤예지. 「Richard Strauss의 연가곡 『Mädchenblumen』 Op. 22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2011년.

이효정. 「R. Strauss의 가곡 『Mädchenblumen(소녀의 꽃)』 Op.22 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2008년.

ABSTRACT

An Analysis of the '『Mädchenblumen』 Op.22' by Richard Strauss

Cho, Ha Na
Department of Music
Major in Voi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ichard Strauss (1864~1949) was a representative composer of the late German Romantic period who composed more than 200 songs during his life. His songs display common features of art songs of the late Romanticism and consist of abundant lyrical melodies, chromatic chords, colorful accompaniment, and rich texture.

The theme of this research, 『Mädchenblumen』 Op. 22, is one of early pieces of Strauss which set a poem of Felix Dahn(1834~1912) to music. It is composed of four songs: Kornblumen, Mohnblumen, Epheu, and Wasserrose.

With melody, dissonance, enharmonic modulation, as well as changing meter to rhymes of the poem and dramatic skip melody, the piece describes four flowers realistically and depicts figures of girls who are the personifications of each flower.

This paper introduces musical characteristics of 『Mädchenblumen』 Op .22

through analysis on poems, accompaniment, chords, and melody, and look into expressive techniques used in the piece that perfectly harmonize poems and music.